

# 濟州島 家口의 크기

李 昌 基\*

目 次	
一. 序 論	1. 家口員數別 家口의 分布
1. 研究目的	2.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變化
2. 資料	3. 1人家口
3. 家族과 家口	四. 家口規模의 地域間 比較
二. 家口의 平均人員	1. 農村地域과 都市地域의 比較
1. 解放前의 平均家口員數	2. 北郡地域과 南郡地域의 比較
2. 解放後의 平均家口員數	3. 地域間 差異의 原因
三. 家口員數別 家口	五. 要約과 整理

## 一. 序 論

### 1. 研究目的

濟州島의 家族制度가 陸地部의 傳統的 韓國家族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相異하다는 것은 여러 學者들의 調查報告와 研究論文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 嶺南大學校 社會學科 助教授

있는 사실이다.<sup>1)</sup> 철저한 長男分家, 財産相續에 있어서의 均分傾向, 部落內婚과 門中組織의 弱화, 離婚과 再婚에 대한 社會的 規制의 弱화, 높은 離婚率과 再婚率, 陸地와 相異한 婚姻儀禮, 死婚의 慣習, 兄弟間 祖上祭祀의 分割 등 朝鮮中期 이후의 傳統的인 韓國家族과는 적지 않은 差異點을 지니고 있다.

濟州島 家族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制度的 特性은 靚연적으로 現實의 家族生活에까지 影響을 미쳐서 濟州島 特有的 家族構成과 家族類型을 形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의 濟州島 家族에 관한 研究는 ①家族制度 및 親族制度에 관한 研究, ②家族關係 및 家族의 內部構造에 관한 研究, ③家族의 外的 形態 및 家族類型에 관한 研究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研究들이 어느 한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研究業績들을 이러한 틀로 엄격하게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發表된 論著들을 概觀해 보면 一次的 關心은 주로 家族制度和 家族關係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家族의 外的 形態와 家族類型에 관한 分析도 그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시도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다른 영역의 연구에 부수적으로 진행된 것들이어서 매우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部落單位의 事例分析에 限定되어서 濟州島 全體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限界가 있었다.

本論考는 이러한 限界點을 극복하고 濟州島 全體의 家口構成形態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目的으로 시도되었다. 家口의 構成形態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첫 시도로서 이 논문에서는 家口의 크기(家口規模)만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1) 濟州島 家族에 관한 文獻은 다음을 참조할 것.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金榮敦外;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語文學·民俗學 分野”,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2.

申幸澈; “解放後 濟州研究概觀(Ⅲ): 社會科學分野(社會·人類學)”, 《耽羅文化》 第4號, 1985.

2) 濟州島 家族의 外的 形態 및 家族類型에 다룬 論著들은 崔在錫의 다음 論文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있다.

崔在錫; “濟州島 農村家族의 現實的類型”, 《農村問題》3, 梨大, 1977. (《濟州島의 親族組織》 第二章 所收)

## 2. 資料

本研究에서 分析의 對象으로 삼은 주된 資料는 解放後 1955년부터 매 5年마다 시행해 온 人口센서스 資料이다. 人口센서스 이외에 年末常住人口 調査에 의한 「韓國統計年鑑」·「제주통계연보」 등이 있으나 이들 통계들은 調査의 不正確 등 資料의 信賴性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分析對象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여러 學者들이 部落單位의 調査를 진행하면서 家口의 크기를 分析한 자료들도 적지 않지만 標本數가 너무 적고 部落의 特殊性이 介入되어 濟州島全體로 一般化시키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人口센서스 자료도 모두가 다 우리의 분석에 유효 적절한 것만은 아니었다. 1955年 통계는 市道別 家口統計만 있을 뿐 市郡으로 細分되어 작성되지를 않았고 家口員數別 統計는 아예 集計되지도 않았다. 1966年 통계는 10% 標本集計值만 있기 때문에 다른 年度의 통계와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 1970年 統計는 準家口<sup>3)</sup>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家口員數別 家口統計에서 1人家口를 누락시킴으로서 전혀 쓸모없는 통계가 되어 버렸다.

人口센서스 자료에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家口의 크기에 관한 分析을 시도하고자 한다.

行政區域이 아닌 地理的 領域으로서의 濟州島에 관한 分析에서는 言語나 慣習 등 文化的인 면에서 오히려 全南 海岸地方에 가까운 楸子島는 제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家族이나 家口分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人口센서스 통계에 楸子島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楸子島를 포함시킨 채로 분석에 임하기로 한다.

3) 準家口란 「普通家口 이외에 전혀 血緣關係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家口」를 말한다(《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용어해설).

## 3. 家族과 家口

濟州島의 家口의 크기를 分析하는 우리의 根本的인 關心은 濟州島 家族의 構成形態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家族의 構成形態에 一次的으로 關心을 가지면서 家口單位로 조사된 人口센서스 자료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家族을 「家計를 共同으로 하는 親族集團」<sup>4)</sup>으로 규정하고 家口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sup>5)</sup>로 定義한다면 家族의 概念과 家口の 概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6)</sup> 家口는 家族에서 出他家族員을 제외하고 非家族同居人(친척, 가사사용인, 기타 동거인 등)을 합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家族의 構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조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 걸친 大量 調査에서 이러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흔히 家族의 代用概念으로서 家口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家口 속에는 상당수의 非家族同居인이 포함된다. 1980年 人口센서스 자료에서 家口構成員과 家口主의 關係를 分析한 바에 따르면 全國과 濟州 모두가 家口當 平均 0.1人 정도의 家事從事者와 기타 同居人(非親族同居人으로서 해석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分析 結果를 해석한다면 家口分析을 통해서도 家族構成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類推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人口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濟州島의 家口의 크기를 분석한 本論考가 濟州島 家族의 構成形態의 一面을 밝히게 하는 研究로서도 상당한 의의를 지닐 것으로 믿는다.

4)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1966. p.19.

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80, 용어해설.

6) 家族과 家口에 대해서는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第一章 第三節 참조.

7) '기타 친척'으로 분류된 항목 속에도 非家族同居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실제 非家族同居인의 수는 이보다 약간 많아질 것이다. '기타 친척'의 수는 全國이 家口當 平均 0.29人, 濟州島가 0.17人으로 나타나고 있다.

## 二. 家口의 平均人員

### 1. 解放前의 平均家口員數

日帝時代 濟州島의 家口當 平均人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1915年 島制 實施 이후 濟州島廳에서 매년 發刊한 것으로 보이는 《濟州島勢要鑑》이 있다. 泉靖一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한 1916年, 1928年, 1934年, 1936年의 平均家口員數를 그의 著書 「濟州島」에 소개하고 있다.<sup>8)</sup>

《濟州島勢要鑑》에서 산출한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를 정리하면 다음 <表1>과 같다.

<表1> 解放前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1)

年 度	1916	1928	1934	1936	1938
平均家口員數	4.98	4.81	3.94	4.0	4.11

資料：濟州島勢要鑑, 泉靖一; 「濟州島」에서 再引用.

1938年 통계는 《濟州島勢要鑑》(1939)에서 筆者計算.

이 자료에 의하면 1930年 이전의 濟州島 平均家口員數는 약 5人 정도로 나타나는데 1930年 이후에는 약 4人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1920年代 中葉 이후부터 濟州島民의 島外移出이 激化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平均家口員數가 0.85人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1930年을 전후해서 調査方法이나 基準에 큰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調査의 不正確에 基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行政統計가 警察의 戶口調査나 行政官吏들의 報告에 의존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資料의 正確性에는 다소의 問題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1925年과 1930年의 人口센서스 통계와 비교했을 때 《濟州島勢要鑑》의 1916年과 1928年 平均家口員數는 실제보다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8)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p. 76, 283.

우리나라에서 近代的인 人口統計가 산출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부터 거의 매 5年마다 시행된 國勢調査라고 할 수 있다. 이 國勢調査의 資料에 의해서 全國과 濟州島의 家口當 平均人員을 비교해 보면 다음 <表2>와 같다.

<表2> 解放前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2)

年 度	1925	1930	1935	1940
全 國	5.24	5.26	5.30	5.34
濟 州	4.02	4.08	4.09	4.15

자료 : 각년도 國勢調査報告書

- ① 1925. 30. 35-準世帯제외, 外國人포함.
- ② 1940-準世帯포함, 外國人제외.

<表2>의 國勢調査 資料에 의해서 解放前의 家口當 平均人員數를 살펴보면 韓國全體는 약 5.3人 정도를, 濟州島는 약 4.1人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는 듯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社會變化가 심하지 않은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全國과 濟州島를 비교해 보면 全國水準에 비해 濟州島가 현저하게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全期間을 통해서 濟州島가 家口當 平均 1.2人 정도나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濟州島 家族이 1920年代 이전부터 小規模 家族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2. 解放後의 平均家口員數

解放後 비교적 정밀한 平均家口員數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은 1955年 人口 센서스부터이다. 1955年 이후 人口센서스 자료에 의한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를 全國의 統計値와 비교해 보면 다음 <表3>과 같다.

韓國全體의 平均家口員數는 解放後 1960年代까지 약 5.5人 정도를 유지하다가 1970년부터는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현저하게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0년에 5.57인이던 것이 1985年 센서스의 잠정보고에 의하면 4.16人으로 나타나서 家口當 平均 1.4人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1975年~1985年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것은 1960年代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產

濟州島 家口의 크기

〈表3〉 解放後의 平均家口員數

年 度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全 國	5.45	5.57	5.49	5.27	5.04	4.55	4.16
濟 州	4.50	4.27	4.38	4.32	4.44	4.32	4.11

자료 : 각년도 人口센서스 보고서

특별조사구와 준가구제외, 1인가구포함.

- ① 1966년 자료는 10% 표본추출집계임.
- ② 1970년 자료에는 준가구가 포함되어 있음.
- ③ 1985년 자료는 잠정집계결과임.

業化, 都市化에 수반해서 韓國家族도 形態上으로는 빠른 속도로 核家族化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解放後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는 1980년까지 줄곧 약 4.3인~4.4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1985년에 와서야 4.1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年末常住人口調查 資料를 이용한 《제주통계연보》의 家口當 平均人員이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家口當 평균 0.2인~0.3인 정도가 높다) 調查가 정밀하게 수행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를 全國 平均値와 比較해 보면 濟州島의 家口規模가 현저하게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975年 이후 全國水準의 平均家口員數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에 따라 그 차이가 많이 축소되어 1985년에는 양자 사이의 편차가 거의 해소되었지만 1970년까지는 家口當 平均 0.9인~1.3인 정도나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도시인 서울이나 부산보다도 더 적다는 사실은 濟州島의 家口規模가 매우 작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sup>9)</sup>

9)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를 서울과 부산의 平均家口員數와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서 울	5.38	5.30	5.01	4.95	4.79	4.40	4.08
부 산	-	5.37	5.11	4.95	4.77	4.44	4.12
계 주	4.50	4.27	4.38	4.32	4.44	4.32	4.11

자료 : 〈表3〉과 동일

이처럼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가 현저하게 적은 것은 濟州島 家族이 철저한 長男分家原則과 강인한 獨立生活意志에 의해 적어도 形態上으로는 核家族化(夫婦家族化)되어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全國의 家口當 平均人員이 1960年 이후 계속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 가는데 비해 濟州島의 경우에 있어서는 平均家口員數의 變化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1980년까지 줄곧 4.3人~4.4人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濟州島의 家族이 産業化나 都市化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小規模家族을 지속해 왔음을 밝히는 것이라 생각된다.<sup>10)</sup>

解放後의 平均家口員數를 解放前과 비교해 보면 약 0.2人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日帝時代에 약 5.3人 정도를 지속하던 韓國全體의 家口當 平均人員이 解放後 1960年代까지는 약 5.5人 전후로 나타나고 있고 濟州島의 경우에 있어서도 日帝時代에 약 4.1人이던 것이 解放後에는 0.2人~0.3人 정도 증가되어서 1980년까지 줄곧 4.3人~4.4人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解放後 平均家口員數가 증가하게 된 原因을 명확하게 밝혀 줄 단서를 현재로서는 찾기 힘들지만 人口센서스 調査原則의 差異<sup>11)</sup>와 海外同胞의 歸還, 家族生活의 安定, 出生率의 上昇 등의 要因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는 農村地域(郡部)과 都市地域(市部), 北郡地域과 南郡地域 사이에도 意味 있는 差異가 發見된다. 平均家口員數의 地域間 比較는 뒤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

### 三. 家口員數別 家口

#### 1. 家口員數別 家口の 分布

平均家口員數와 더불어 家口員數別 家口の 分布도 家口の 크기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指標가 된다. 平均家口員數가 家口の 크기에 대한 平均值的 概念이라면 家口員數別 家口는 平均值를 中心으로 人員上의 家口構成이 어떻게 分布되어 있는가를 밝혀주는 分布의 概念이라 할 수 있다.

10) 崔在錫, “濟州島의 自生的 核家族”, 《세계의 문학》, 1978. 겨울호, 民音社.

11) 1925년부터 1955年 人口센서스까지는 現在人口原則(de facto)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1960年 人口센서스부터는 常住人口原則(de jure)으로 바뀌었다.



韓國全體와 濟州島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를 각 센서스 연도별로 살펴보면 <表4>와 같다.<sup>12)</sup>

우선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家口員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sup>13)</sup>

全國水準의 경우 1960년부터 1980년까지 全期間을 조감해 보면 5人家口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지만 年度別로는 1960년에는 5人家口, 1966년에는 5人家口와 6人家口, 1975년에는 5人家口, 1980년에는 4人家口와 5人家口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最頻家口가 5人~6人家口에서 4人~5人家口로 移動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濟州島의 경우에는 1960년과 1966년에 3人家口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으나 1975년과 1980년에는 5人家口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濟州島에서는 最頻家口가 3人家口에서 5人家口로 移動한 것이다. 多人數家口에서 少人數家口로 移動하는 全國의 경우와는 달리 少人數家口에서 多人數家口로 最頻家口가 移動하는 것은 濟州島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變化에 중요한 特徵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2.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變化

韓國全體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年度別 變化趨勢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 ① 1人家口와 2人家口의 比率은 198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② 3人~5人家口의 比率은 1966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③ 6人家口의 比率은 1975년까지 증가하다가 1980년에는 낮아진다.
- ④ 7人~9人家口의 比率은 1966년에 약간 높아지는 듯하다가 1966년 이후에

12) 1955년 人口센서스報告書에는 家口員數別 家口가 集計되어 있지 않고 1970년에는 1人家口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1960年, 1966年, 1975年, 1980年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3) 1960년부터 1975년까지의 全國水準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분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崔在錫:《現代家族研究》, 1982, 一志社, 第4章 家口의 構成)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13) 1975년까지의 變化趨勢는 崔在錫 教授가 이미 정리한 바 있지만 濟州島의 傾向과 비교하기 위해서 1980年 자료를 추가하여 다시 정리한다.

(千分率)

〈表4〉 家口員數別 家口分布

家口員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	8人	9人	10人	11人以上	計	
全 國	1960	23.0	70.9	117.8	147.2	159.1	152.9	127.3	88.9	53.5	26.9	29.9	1000.1
	1966	27.9	76.7	116.1	139.8	154.5	155.7	131.9	91.7	59.2	23.4	23.1	1000.0
	1975	42.3	83.1	122.5	161.4	183.2	165.8	117.3	76.9	24.5	13.1	9.8	999.9
	1980	48.0	105.4	144.6	203.3	200.4	146.5	97.0	29.9	14.8	6.2	4.0	1000.1
濟 州	1960	89.8	153.0	173.5	169.0	141.3	110.6	74.7	45.3	22.9	11.7	8.1	999.9
	1966	96.1	149.0	157.1	147.1	140.0	121.4	89.4	53.8	29.8	9.7	6.7	1000.1
	1975	121.8	118.8	130.2	144.0	150.0	138.9	100.1	64.4	18.7	8.2	5.0	1000.1
	1980	111.7	114.7	130.2	164.2	177.3	147.5	106.8	27.0	13.4	4.7	2.4	999.9

자료: 각년도 人口센서스報告書  
 특별조사구와 준가구의  
 1966年 자료는 10% 표본 추출 집계치임.

濟州島 家口의 크기

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⑤ 10人 이상의 家口는 그 比率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 볼 때 1966년의 10% 標本集計值를 예외로 한다면 全國水準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變化는 5人 이하의 少人數家口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7人 이상의 多數家口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一貫되게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家口當 平均人員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현저하게 축소되어 가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濟州島의 경우에 있어서는 韓國全體의 變化趨勢와 매우 相異한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表4>에 나타난 濟州島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變化趨勢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人家口의 比率은 197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1980년에 약간 감소한다.

② 2人家口와 3人家口의 比率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의 3人家口의 比率은 1975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③ 4人家口의 比率은 계속 감소하다가 1980년에 상승한다.

④ 5人~8人家口의 比率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60年과 1966年의 5人家口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980年의 8人家口의 比率은 감소하고 있다.

⑤ 1966年의 9人家口를 예외로 한다면 9人 이상 家口는 그 比率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濟州島에서 나타나는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變化趨勢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1960년~1975년 사이에 1人家口가 약 3.2% 포인트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少人數家口가 약간 감소하고 5人~8人의 多數家口는 그 比率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濟州島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變化趨勢가 韓國全體의 變化趨勢와는 달리 少人數家口의 比率이 감소하고 多數家口의 比率이 증가하는 原因을 현재로서는 무어라 단정하기 힘들다. 變化의 樣相이 매우 복잡하고 또 地域間 偏差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地域間 偏差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인 原因究明은 시간을 두고 관련된 여러 영역을 면밀하게 분석한 연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3. 1人家口

濟州島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特徵은 1人家口의 比率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全國的으로 1人家口의 比率이 점차 높아 가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3%(1960年)~4.8%(1980年)정도인데 비해 濟州島는 약 9%내지 11%~12%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全國水準에서 都市地域이나 農村地域을 막론하고 5%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sup>14)</sup> 濟州島에서 1人家口의 比率이 10%를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濟州島에서 특히 1人家口의 比率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長男分家を 原則으로 하는 濟州島의 家族制度를 들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濟州島에서는 次男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長男까지도 婚姻하면 分家를 하기 때문에 父母家族과 長男家族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sup>15)</sup> 子女들을 모두 다 分家시키고 老夫婦만의 獨立된 生活을 하다가 男便이 사망하게 되면 勞動能力을 상실하고 子의 扶養을 받게 될 때까지 1人家口로 남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濟州島에서 女性의 死別率이 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平均 壽命의 差異, 夫婦年齡의 差異, 再婚率의 差異 등으로 女性의 死別率이 높은 것은 一般的인 現象이지만 濟州島에서는 日帝下의 島外移出, 4·3事件등의 영향으로<sup>16)</sup> 女性의 死別率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死別女性의 再婚率은 매우 저조하다. 男便과 死別하고 홀로 된 女性이 再婚을 하지 않은 채 子女들을 모두 分家시키고 나면 1人家口를 形成하게 될 것이다.

높은 離婚率이 濟州島에서 1人家口의 比率을 높게 만든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66년 人口센서스의 10% 標本集計資料에 의하면 離

14) 都市와 農村間 比較는 <表8>을 參照할 것.

15) 長男家族에 대해서는 특히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第一章 參照.

16) 日帝下의 島外移出과 4·3事件으로 인한 濟州島의 性比 不均衡에 대해서는 李昌基; 濟州島의 性別·年齡別 人口構成”, 《人口保健論集》2-2, 1982, 參照.

濟州島 家口의 크기

婚率이 1人家口의 增大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表6〉 참조). 離婚者의 再婚率이 死別者에 비해 월등히 높고 또 女性의 경우에는 再婚할 때까지 어린子女들을 데리고 親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sup>17)</sup> 1人家口로 남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單獨家口主의 分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人口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單獨家口主의 性別 分布를 살펴보면 〈表5〉와 같이 男子보다 女子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濟州島에서는 女子의 比率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表5〉 單獨家口主의 性別分布

年 度		1960	1966	1975	1980
全 國	男	26.4	27.1	35.7	35.8
	女	73.6	72.9	64.3	64.2
濟 州	男	18.1	16.0	25.2	27.8
	女	81.9	84.0	74.8	72.2

자료: 각 년도 人口센서스 보고서, 보통가구

1960년 자료는 20% 표본집계치임.

1966년 자료는 10% 표본집계치임. 1인의 準家口 포함.

濟州島의 單獨家口主 중에서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女性家口主의 年齡別 配偶關係를 1966년 人口센서스의 10% 標本集計結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84%가 50代 이상 年齡層에 集中되어 있으며 그들의 90% 이상이 死別者임을 알 수 있다(〈表6〉 참조).

17)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第七章 離婚과 再婚.

濟州島 家口員의 配偶關係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表6〉 濟州島 女性單獨家口主의 年齡別 配偶關係

年 齡	有配偶	死 別	離 婚	未 婚	計
15 ~ 19				6	6(1.1)
20 ~ 29			5	8	13(2.4)
30 ~ 39		10	7	1	18(3.3)
40 ~ 49		46	4		50(9.2)
50 ~ 59		99	8		107(19.7)
60 ~ 69		183	4		187(34.4)
70 ~ 79	1	122	1		124(22.8)
80 以上		39			39(7.1)
計	1(0.2)	499(91.7)	25(5.3)	15(2.8)	544(100.0)

자료 : 1966년 人口센서스 10% 표본집계결과보고.  
( )안은 百分率임.

資料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全數調査가 아닌 10% 標本集計結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標本誤差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濟州島의 1人家口의 性格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濟州島에서 1人家口의 比率이 높은 것은 長男分家原則과 女性의 높은 死別率에서 1차적인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四. 家口規模의 地域間 比較

##### 1. 農村地域과 都市地域의 比較

앞에서 우리는 濟州島의 家口規模를 全國平均値와 比較해 보았다. 그 결과 濟州島의 平均家口員數가 全國平均値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家口員數別 家口의 分布에 있어서도 濟州島는 3人~4人 이하의 少人數 家口의 比率이 全國水準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濟州島의 家口規模가 매우 작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濟州島의 家口規模가 全國平均値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農村地域(郡部)과 都市地域(市部)으로 구분해서 比較해 보면 農村地域의 家口規模가 都市地域보다도

濟州島 家口の 크기

더 작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農村地域의 家口規模가 都市地域보다 더 큰 傾向과는 반대로 濟州島에서 農村地域의 家口規模가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表7〉 平均家口員數의 市部・郡部間 比較

年 度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全 國	市 部	5.38	5.11	5.02	4.81	4.42	4.10
	郡 部	5.63	5.70	5.45	5.27	4.72	4.27
濟 州	市 部	4.37	4.37	4.39	4.46	4.20	4.02
	郡 部	4.24	4.38	4.29	4.42	4.39	4.24

자료: 〈表3〉과 동일

〈表7〉에 의하면 全國的으로는 郡部の 平均家口員數가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濟州島에서는 1975년까지 市部の 平均家口員數가 높게 나타나고 1980년 이후에야 郡部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表8〉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市部・郡部間 比較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1966년의 10% 標本集計値를 예외로 한다면 1975년까지 1人家口와 2人家口の 比率이 郡部에서 높게 나타나고 1980년에 와서야 市部에서 5인 이하의 少人數家口の 比率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1970年 人口센서스 보고서에는 1人家口를 제외시켰지만 2人家口の 比率은 역시 郡部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은 濟州島 家族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少規模家族이 農村地域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이며 濟州島 家族이 産業化나 都市化와 關係 없이 적어도 形態上에 있어서는 自生的으로 核家族化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1980年 이후에는 農村地域의 家口規模도 다소 축소되었지만 都市地域의 家口規模가 더욱 빠르게 축소되어 비로소 農村地域보다 작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濟州島의 家口規模에 대한 都市化의 影響은 1980年代에 와서야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에다 年齡構造의 變化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千分率)

〈表8〉 家口員數別 家口の 市部・郡部間 比較

年	度											計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	8人	9人	10人	11人 이상		
1960	全 國	23.8	81.2	133.8	156.2	159.3	145.4	118.8	81.5	48.0	25.9	26.0	999.9
	濟 州	22.6	66.8	111.4	143.5	158.9	130.7	91.9	55.7	31.0	31.5	31.5	999.9
1966	全 國	86.1	152.7	173.4	159.0	140.6	109.2	75.9	50.3	27.2	13.7	12.0	1000.1
	濟 州	90.9	153.1	173.5	172.1	141.6	111.1	74.3	43.9	21.6	11.1	6.9	1000.1
1975	全 國	34.1	96.8	138.2	153.3	159.7	149.7	117.9	74.7	43.7	16.2	15.4	999.7
	濟 州	24.5	65.5	103.8	132.2	151.5	159.1	139.7	101.1	67.9	27.4	27.4	1000.1
1975	全 國	103.5	150.4	160.6	138.0	139.6	112.1	87.9	58.2	27.0	13.5	9.2	1000.0
	濟 州	93.6	148.5	155.9	150.1	140.1	124.5	90.0	52.3	30.7	8.4	5.8	999.9
1975	全 國	45.2	90.5	135.2	179.1	195.0	160.0	100.7	60.9	16.5	9.1	7.8	1000.0
	濟 州	39.3	75.8	109.8	143.6	171.4	171.6	133.9	92.9	32.6	17.1	11.9	999.9
1975	全 國	118.2	109.0	132.9	150.0	158.4	140.5	95.4	62.2	18.6	8.4	6.3	999.9
	濟 州	123.5	123.4	129.0	141.1	146.0	138.1	102.3	65.4	18.7	8.1	4.4	1000.0
1980	全 國	47.1	107.0	153.0	223.4	208.4	137.5	81.1	23.3	11.1	4.8	3.4	1000.1
	濟 州	49.3	103.1	133.0	174.8	189.0	159.2	119.5	39.3	20.0	8.1	4.9	1000.2
1980	全 國	113.6	123.1	140.2	172.6	181.9	136.0	86.2	26.2	12.6	4.8	2.9	1000.1
	濟 州	110.5	109.7	124.4	159.3	174.7	154.2	118.9	27.5	13.9	4.7	2.2	1000.1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	8人	9人	10人	11人 이상	計

자료: 〈表4〉와 동일.



## 2. 北郡地域과 南郡地域의 比較

濟州島의 家口規模가 1980年代 이전까지는 農村地域이 都市地域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미 살펴 보았지만 같은 農村地域(郡部)에서도 北濟州郡과 南濟州郡 사이에 뚜렷한 偏差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表9〉 平均家口員數의 郡別比較

年 度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北濟州郡	-	4.09	-	4.07	4.25	4.32	4.16
南濟州郡	-	4.40	-	4.48	4.56	4.53	4.34

자료 : 〈表3〉과 동일

1955년과 1966년 보고서에는 郡別로 집계되지 않았음.

〈表9〉의 平均家口員數 比較에 의하면 1975년까지는 北濟州郡 地域이 南濟州郡 地域에 비해 家口當 平均 0.3人~0.4人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1980년과 1985년에도 약 0.2人 정도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北郡地域의 平均家口員數가 南郡地域보다 적은 현상은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比較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즉 〈表10〉에서 보면 1960년에 1人家口, 2人家口, 3人家口の 比率이 南郡地域에 비해 北郡地域이 높으며 1975년과 1980년에는 1人家口와 2人家口에서 北郡地域이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특히 1人家口の 比率은 전 기간을 통해서 北郡地域이 2.5%~4.6% 포인트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1960년의 4人家口以上, 1975년과 1980년의 3人家口 이상은 南郡地域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北濟州郡 地域과 南濟州郡 地域 사이의 家口規模의 差異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地域을 더욱 細分하여 市·邑·面別 平均家口員數를 比較하여 보았다.

그 結果 楸子島를 例外로 한다면 年度別로 다소의 변동은 있지만 濟州島의 서쪽지역과 동·남쪽지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市·邑·面別 平均家口員數는 〈表11〉과 같다.

(千分率)

〈表10〉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의 郡別比較

年 度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	8人	9人	10人	11人以上	計	
1960	北 郡	102.9	162.7	176.8	169.6	137.6	112.3	70.6	36.4	16.8	9.0	5.2	999.9
	南 郡	78.4	143.0	170.1	174.7	145.7	109.9	78.2	51.6	26.6	13.2	8.6	1000.0
1975	北 郡	146.5	136.7	126.3	136.2	136.6	132.2	96.9	60.7	16.4	7.3	4.1	999.9
	南 郡	105.5	112.9	131.1	145.0	153.3	142.6	106.6	69.1	20.6	8.6	4.7	1000.0
1980	北 郡	136.9	119.6	121.7	147.9	160.3	147.8		165.8				1000.0
	南 郡	90.9	102.3	126.4	167.8	185.5	159.0		168.1				1000.0

자료: 〈表4〉와 동일

1966년 보고서는 郡別로 집계되지 않았음.

濟州島 家口의 크기

〈表11〉 시·邑·面別 平均家口員數

年 度		1925	1930	1960	1970	1975	1980	1985
濟 州 市		4.35	4.17	4.37	4.39	4.48	4.26	3.97
西 歸 浦 市								4.15
北 濟 州 郡	涯 月 邑	3.64	4.07	3.93	3.80	4.12	4.12	4.03
	翰 林 邑			3.76	3.79	4.09	4.24	4.09
	翰 京 面	3.96	3.87	3.86	3.84	4.02	4.02	4.04
	朝 天 邑	4.03	4.07	3.92	4.15	4.35	4.44	4.38
	舊 左 邑	4.02	4.01	4.52	4.43	4.56	4.53	4.17
	楸 子 面	4.86	5.02	5.96	5.76	5.52	5.35	4.63
南 濟 州 郡	大 靜 邑	3.92	3.89	4.01	4.26	4.53	4.45	4.24
	安 德 面	3.69	3.92	4.62	4.34	4.32	4.32	3.92
	中 文 面	3.88	4.05	3.94	4.05	4.44	4.43	-
	西 歸 邑	3.91	4.18	4.48	4.71	4.60	4.53	-
	南 元 邑	4.40	4.37	4.63	4.57	4.88	4.79	4.51
	表 善 面	3.78	3.94	4.85	4.54	4.70	4.68	4.31
	城 山 邑	4.18	4.30	4.66	4.60	4.60	4.54	4.60
郡 部 平 均		4.02	4.08	4.24	4.29	4.42	4.39	4.24

자료: 〈表2〉 〈表3〉과 동일

中文面과 西歸邑은 1981.7.1 西歸浦市로 승격됨.

日帝時代의 郡部平均은 濟州島 全體平均으로 代身함.

〈表11〉에 의하면 涯月邑·翰林邑·翰京面 등 北濟州郡의 3개 邑面에서 平均 家口員數가 줄곧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濟州市의 서쪽에 연속해 있는 西部濟州의 中心地域들이다. 여기에 비해서 言語나 慣習이 濟州島와 매우 相異하고 文化的으로는 오히려 全南 海岸地域에 가까운 楸子面을 例外로 한다면 南濟州郡의 西歸邑·南元邑·表善面·城山邑 등 濟州島의 남쪽 혹은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平均家口員數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과 인접해 있는 北濟州郡의 舊左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北濟州郡의 朝天邑과 南濟州郡의 大靜邑·安德面, 中文面은 平均家口員數에 있어서도 中間的 性格을 띠고 있다. 이들 중 安

德面은 年度別로 기복이 심하지만 나머지 邑面들은 대체로 1925년부터 1970년까지(朝天邑은 1975년까지) 郡部平均보다 적은 平均家口員數를 보이다가 1975년 이후에 郡部平均보다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北濟州郡과 南濟州郡 사이의 平均家口員數의 差異는 濟州島西部地域과 東·南部地域의 差異로 해석할 수 있고 都市地域(市部)보다 農村地域(郡部)의 家口規模가 작았던 것도 西部地域의 平均家口員數가 현저하게 적었던 데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地域間 差異의 原因

北濟州郡과 南濟州郡 사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여 濟州島의 西部地域과 東·南部地域 사이에 家口規模의 差異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면 그 差異가 어떤 要因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濟州島 家族에 관한 지금까지의 研究 結果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差異의 原因을 선명하게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家口規模의 差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몇 가지 要因에 대해서 假說의 所以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

濟州島內의 下位地域들 사이에 家口規模의 差異가 발생하게 된 原因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濟州島內의 下位地域들 사이에 家族制度上의 差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家口規模가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확인된 涯月邑·翰林邑·翰京面 등지는 과거 大靜縣에 소속되어서 西部濟州의 文化的 中心地 구실을 하던 지역들이며, 家口規模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舊左邑·城山邑·表善面·南元邑·西歸邑 등지는 과거 旌義縣의 中心地 혹은 그 管轄區域들이다. 行政上 大靜縣과 旌義縣으로 分離되어서 長久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社會經濟的으로나 文化的으로 상당한 變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言語와 慣習 등 여러 면에서 西部地域과 東·南部地域 사이에 적지 않은 差異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家族制度에 있어서도 差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濟州島 家口의 크기

만약 家口規模의 地域間 差異가 家族制度上的 相異에서 緣由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濟州島의 家族制度를 研究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은 앞으로의 커다란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둘째는 經濟的인 側面에서 營農條件의 差異가 家口規模의 差異를 가져온 原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漢拏山을 중심으로 山北地域과 山南地域 사이에는 氣象條件이 다르고 營農條件이 매우 相異하다. 南濟州郡의 戶當耕地面積이 北濟州郡보다 클 뿐만 아니라 특히 果樹栽培에 있어서는 農家戶數·耕地面積·租收益 등에서 南濟州郡이 월등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81年 <제주통계연보>에 의하면 南濟州郡의 果樹栽培戶數는 北濟州郡의 약 8.4배, 果樹栽培面積은 5.2배, 감귤생산 租收益은 9.5배에 달하고 있다.

果樹栽培를 中心으로 하는 營農條件은 많은 勞動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家口規模도 따라서 增大될 可能性이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家口規模의 差異를 야기시킨 原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死別率 특히 女性의 死別率이다. 이 점은 활용 가능한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原因이 되지 않을까 한다.

<表12> 郡別 死別率 比較 (%)

年 度	1960	1966	1980	1980(女)
北濟州郡	10.22	16.01	14.38	24.42
南濟州郡	8.48	12.81	10.41	18.00

자료: 각 년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text{死別率} = \text{死別者數} / 15\text{歲以上人口} \times 100$$

家口員의 配偶關係가 郡別로 集計되어 있는 1960년, 1966년, 1980년 人口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平均家口員數와 死別率을 비교, 검토해 보면 平均家口員數와 死別率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表12>에 의하면 平均家口員數가 적은 北濟州郡은 南濟州郡에 비해서 항상 死別率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男女의 死別率을 분리집계한 1980年 자료에 의하면 女性의 死別率의 差異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점은 앞서 1人家口를 분석할 때 單獨家口主의 70%~80%가 女性이며 女性單獨家口主의 90% 이상이 死別者였던 것과도

일치한다<sup>18)</sup>. 1960년 人口센서스 자료에 의해서 邑面別로 死別率과 平均家口員數를 비교해 보더라도 兩者間에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表13〉 邑面別 平均家口員數와 死別率(1960年)

地	城	平均家口員數	死別率(%)
北 濟 州 郡	涯 月 邑	3.93	10.89
	翰 林 邑	3.76	10.78
	翰 京 面	3.86	9.92
	朝 天 邑	3.92	11.29
	舊 左 邑	4.52	9.66
	楸 子 面	5.96	6.00
南 濟 州 郡	大 靜 邑	4.01	8.67
	安 德 面	4.48	7.72
	中 文 面	4.62	7.99
	西 簾 邑	3.94	10.03
	南 元 邑	4.63	8.26
	表 善 面	4.85	7.72
	城 山 邑	4.66	9.15

자료 : 1960年 人口센서스 보고서(제주도편 p. 19)

〈表13〉의 邑面別 死別率과 平均家口員數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死別率이 높은 지역에서 平均家口員數가 적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濟州島의 死別率 특히 女性의 死別率은 日帝下의 島外移出·徵兵·徵庸, 그리고 解放後의 4·3事件, 6·25 등 濟州島가 경험한 近代의 歷史的 事實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 五. 要約과 整理

지금까지 우리는 濟州島 家口의 크기(家口規模)를 살펴보기 위하여 家口의

18) 〈表5〉와 〈表6〉 참조.

### 濟州島 家口의 크기

平均人員과 家口員數別 家口分布를 分析하고 家口規模의 地域間 差異를 검토해 보았다. 各年度의 人口센서스 報告書가 우리의 分析에 적절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진행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1. 濟州島 家口의 크기는 적어도 1920年代 이전부터 韓國全體의 平均보다 훨씬 작은 少人數家口를 유지해 왔고 최근까지 이러한 경향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특히 1人家口의 比率이 全國平均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 濟州島 家口의 크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2. 家口規模의 變化에 있어서도 全國平均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濟州島는 變化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1980년까지 줄곧 4.3人~4.4人 정도를 유지하다가 1985년에 와서야 비로소 4.1人 정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3. 濟州島에서 이처럼 小規模家口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濟州島 家族이 産業化나 都市化와 관계없이 적어도 形態上에 있어서는 自生的으로 核家族化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長男分家를 原則으로 하는 濟州島의 家族制度和 最近 濟州島가 경험한 歷史的 事件에 영향을 받은 높은 死別率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4. 濟州島의 家口規模를 都市地域과 農村地域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면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農村地域이 都市地域보다 家口規模가 더 작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은 農村地域이 都市地域 보다 濟州島 家族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이번 研究를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이라고 한다면 濟州島內의 下位 地域間의 家口規模의 差異가 뚜렷하게 존재함을 확인한 점이라 할 것이다. 濟州島의 西部地域이 家口規模가 작고 東·南部地域이 家口規模가 크다는 사실은 단순히 家口規模의 差異를 확인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濟州島 家族을 研究하는 데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그 一次的 原因은 死別率 특히 女性의 死別率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營農條件의 差異와 함께 家族制度上의 相異에서 연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濟州島의 家族研究는 濟州島를 하나의 單一文化圈으로 간주하여 주로 陸地의 傳統的 家族과 어떻게 다른가 比較하는 데 關心을 기울여 왔다. 그

러나 濟州島內에서도 地域間에 상당한 差異가 存在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島內 地域間의 比較研究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은 金후의 濟州 島 家族研究에 중요한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